

### 교계 청소년 대상 '여름방학 강좌' 컴퓨터·어학·국악·영화등 다채

## “골라...골라...배우세요”

여름방학이 벌써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다. 더위와 일상에 지쳐 의미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는 청소년들이 남는 방학시간을 좀더 알차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불교 청소년·복지시설의 문을 두드려보자. 교계 청소년·복지시설에서는 일찍부터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문화, 학습프로그램을 마련해 놓고 청소년들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다. 컴퓨터, 영어연극, 댄스, 국악 등의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면 흥미는 물론 실력까지 쑥쑥 자랄 것이다.

목동종합청소년회관은 컴퓨터홈페이지제작, 만화그리기, 컴퓨터애니메이션, 자기표현연극교실, 테마신문 만들기, 뮤지컬 영어연극, 페퍼활동공작교실 등 여름방학특별프로그램을 21일까지 실시한다. (02)646-6815

양정청소년회관은 중고생을 대상으로 영어, 일본어, 컴퓨터, 만화그리기, 합창댄스, 스포츠댄스, 영화제작 등 정보취미교양강좌를 열고 (051)868-0750, 합지골청소년수련원에서도 영어교실, 국악교실, 장구교실, 수지교실 등을 진행한다. (051)405-5223

법동종합사회복지관은 논술, 글쓰기, 동화구연, 단소교실, 영어 수학을 지도하는 매미학교를 열고 있으며 (042)633-1141, 봉동종합사회복지관은 초등학생을 위한 박물관기행, 바둑, 어린이영어, 동화구연, 영화상영 등의 방학특강교실을 준비했다.

(02)817-8052

능인종합사회복지관은 매주 월~금요일 학습보조교실, 어린이시사토론회, 영어, 독서, 일기, 한문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02)571-2988, 구로종합사회복지관도 유래과학교실, 동화구연교실, 아동컴퓨터교실, 꾸러기영어교실 등과 중고생을 위한 영어수학 집중복습 계절특강을 20일까지 실시한다. (02)852-0525

덕유사회복지관은 중3학생과 고1 학생을 위한 수학 영어 교실을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과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진행하며(032)325-2161, 삼천방과후어린이집에서는 방학기간 동안 호트러지가 쉬운 초등학교 저학년생을 위해 매일 오전 8



◇교계 청소년 복지시설의 각종 프로그램에 참가해 여름방학을 알차게 보내자.

시30분~1시까지 집단활동을 실시한다. (02)421-6077

부산불교교육원은 26일까지 매주 토요일 학습능률과 창의력을 키우는 여름방학 청소년합선교실을 연다. 초등학교 5시에 실시한다. (051)466-4080

목수종합사회복지관은 초등학교 저학년생을 위한 자기표현 훈련프로그램을 매주 월, 목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실직자정과 저소득가정 청소년을 위한 여름학교

를 준비했다. 25일까지 매일 오전 9시~오후 1시 학습지도, 영화상영, 노래교실 등의 프로그램과 중식이 무료로 제공된다. (02)2282-1108

한편 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만 4세~13세의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신변처리와 학습지도, 현장학습 등을 실시하는 여름계절학교를 21일까지 연다. (043)652-0900

이은자 기자

(ejele@buddhania.com)

### 명사들의 건강비결 ⑫



이 의 운

〈불교교무원 총재〉

“육체의 불균형을 바로 잡는 것이 건강의 원천입니다.”

육체와 정신의 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매일 아침 새벽예불과 운동을 한다는 이외의 한국불교교무원 총재(78). 이총재는 삼보를 예경하는 새벽예불을 매일 병행함으로써 불자의 예를 다함과 동시에 정신적으로도 에너지를 축적하고, 육체적으로 감각이 둔해지고 기력이 소진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조기체조를 한다고 밝혔다.

13살 때 사찰생활을 하면서 시작한 새벽예불을 78세인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다. 또 12년전 부터는 새벽예불을 마치고 집 근처인 양천공원에서 매일 실시

### 66년째 새벽예불...아침체조도 “한가하면 병든다” 바쁘게 살아

되는 조기체조에 나가 운동을 한다. 1시간 정도 하는 조기체조는 직업적인 건강법과는 달리 근본적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해 준다고 이 총재는 설명한다. 사실 이 총재의 가계는 대체적으로 건강한 편은 아니었다. 이 총재도 고혈압과 당뇨가 있었으나 새벽예불과 체조를 거르지 않으면서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 보통사람들이 쉽게 걸리는 감기나 몸살조차 피하는 것이 없는 경우가 별로 없다. 이 총재의 새벽예불과 몸과 정신의 유기적이고 순환적인 질서를 유지해주는 기 때문에 하루라도 거르면 조화가 깨지고 기운이 탁해져서 모든 일이 제대로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한다.

이 총재가 비슷한 연배의 친구들에 비해 건강한 것은 또 하나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적극적인 삶’이다. 78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그의 하루는 젊은 사람 못지않을 정도로 왕성한 활동으로 가득차 있다. 이 총재가 몸담고 있는 단체인 한국불교교무원연합회, 한국불교교무원, 대한노인회, 한경장학회, 한국경상교육기구 등 열 손가락으로 셀 수 없을 정도. 이같이 활발히 활동하기 때문에 숙면과 소화 등 여러 측면에서 건강을 지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아울러 “바쁘게 살자”는 것이 신조가 되었다.

“한가하면 몸도 마음도 나태해져 병이 들기 쉽습니다. 무엇이든지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예방의학이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라는 것이 이 총재만의 건강비결이다.

김중근 기자(gamja@buddhania.com)

### 심성 좋은 아이 가지려면 이렇게

btn ‘좋은인연, ...’ 태교일기등 모범사례 소개

인간의 탄생을 업력소생에서 원력소생으로 바꾸기 위해선 어떤 방법이 좋을까.

그 해답을 시청자들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고자 마련된 불교TV의 태교 프로그램 ‘좋은 인연, 좋은 아이’(담당PD 최정란)가 임신부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매주 월요일 오전9시30분부터 30분 동안 방송되는 이 프로그램은 불교식 태교법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석성우스님(대구 파계사주지)이 출연해 태교의 목적부터 육아법에 이르기까지 태교 전반에 관한 내용을 불교 사상과 연관시켜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준다. 또 임신 12주를 맞은 임신부의 실제 생활을 카메라에 생동감 있게 담은 ‘수경씨의 태교 일기’ 코너와 태교의 모범 사례와 경험담을 소개한



◇불교태교법을 설명하는 석성우스님.

‘나의 태교이야기’도 이 프로그램의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앞으로 스아이에게 들려주는 좋은 열매 차(茶)와 태교 스육바라비 태교법 스바처님의 육아법 등도 소개할 예정이다.

김주일 기자(jikum@buddhania.com)



◇경산심인당에서 개최된 진각스카우트 발대식.

### 진각스카우트 창단

품성 기르고 청소년포교

대한불교 진각종 경산심인당(주교 증광)이 청소년 진각스카우트를 조직, 21일 정식으로 창단했다. 청소년불자들의 품성향상과 체력단련을 위해 결성된 진각스카우트는 이날 창단식에 이어 23일까지 경북 울진의 한국보이스카우트 아영장에서 제1회 아영대회를 개최했다.

유년대, 소년대, 연장대 등 총 87명의 대원과 지도자가 참석한 아영대회에서 청소년불자들은 협동심과 인내심을 기르며 심신이 건강한 불자청소년

대원이 되기 위한 기초를 다졌다.

경산심인당은 앞으로 진각스카우트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올바른 교육과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봉사정신과 불심이 깊은 청소년을 교화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 진행해온 청소년 자성학교 운영 등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청소년포교에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창단식에는 진각종 성초 통리위원장, 일심행신도회장, 한국보이스카우트 경북연맹 유교화 국장 등이 참석해 진각스카우트의 발전을 기원했다.

이은자 기자

### 어린이집 교사 수련회 31~2일 하동 쌍계사에서

대한불교유아교육학회(회장 정인스님)가 주최하는 제26회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수련회가 7월 31일~2일 경남 하동 쌍계사에서 열렸다. 이번 수련회에는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300여명이 참석, ‘유아과학교육’ ‘대화기법’ ‘교육사례발표’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 토지불사의 대원력을 횡령으로 몰다니 말도 되지 않습니다.

- 조계사 운영에는 한 점 의혹도 없음을 밝혀 드립니다.

(※제세공과금 및 등기비용, 기타비용은 산정하지 않았음.)

#### ※전세보증금 내역

초 항	3억원	유 정	1억5천만원
성종사	1억원	만 포	5천만원
만 화	5천만원	이발소	1천5백만원
조계사 신협	3억원	도장집	3백만원
가 게	1천만원	미용원	1천만원
사회복지재단	3천만원	출판사	3천만원

옛말에 ‘적반하장(賊反荷杖)’도 분수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조계사 사부대중의 심정이 바로 그렇습니다. 지난해 12.23법난에 의해 6천여 경찰병력이 신성한 도량을 유린했을 때, 소위 금강호법단이라는 강대 승려들이 주지 현근스님을 사경에 이룰 정도로 집단폭행하고 일체의 조계사 서류를 강탈해간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조계사 사부대중은 폭력경찰의 비호를 받는 강대 승려들의 위세에 눌려 그저 발만 동동 구르다가 경찰에 개갈이 끌려가거나 도랑 밖으로 내팽개쳐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현근스님은 그날 사건으로 뇌물 다쳐 사경을 헤맸고, 도피가 아니라 치료를 위해 중국에 머무르고 있음에도 당시 집단폭행을 목격한 경찰은 폭행범들에 대한 수사 착수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계사를 강점하고, 강탈한 사람들이 이제 6개월이나 지나서 주지 현근스님을 비롯한 소인자 14명을 무려 2백50여여원을 횡령했다는 황당한 죄를 뒤집어 씌우며, 검찰에 고소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저들이 강탈해 간 서류들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세상 강조하며, 백보를 양보해 살형 장부의 내용이 맞지 않는다 해도 검찰의 수사에 의해서 시비비가 가려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황당무계한 혐의를 뒤집어 씌우는 것도 모자라 언론에 ‘마사사상’ 식으로 유포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폭거임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우리는 관원장부가 모두 강탈당한 상황 아래서 수백억에 이르는 그동안의 조계사 재부구조를 소상하게 설명할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소인자들의 기억과 증언을 종합해 다음과 같이 저들 주장의 허구성과 악랄한 저의를 밝혀고자 합니다.

1. 조계사는 지난 11년간 무려 3천여평에 이르는 대규모 토지매입불사를 진행해 왔고, 그 금액만도 약 2백80억원대에 이르며, 저들이 제시한 금액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 현재 조계사를 강점하고 있는 세력들은 언론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지난 11년간 조계사가 매입한 부동산 총액이 2백49억여원이며, 96년부터 98년까지 매입금액은 1백22억여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6년 이후의 정확한 매입금액만 1백61억3천여만원으로 무려 40억원 가까이 차이가 나며, 11년간 매입금액을 산정해 보면 그 차이는 더욱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저들은 조계사에서 마치 시가보다 비싼 값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것 처럼 매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매입가격을 낮추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심지어는 끈질긴 협상을 통해 매도호가의 절반 가격으로 매입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전세보증금의 경우도 저들은 11억 1천여만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10억여만원으로, 그나마도 보현의 집과 어린이회 사무실 임대보증금으로 각 1억5천만원과 2천만원이 지출되어 8억7천여만원에 불과할 뿐 아니라 대부분이 96년 이전에 전세계약이 체결되어 수입발생 시점이 96년 이전임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자세한 96년 이후 부동산 매입가격과 전세보증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96년 이후 부동산 매입금액

병원건물 2동 (현 교육원 건물)	27억원
공인회계사 회관(현 포교원 건물)	31억5천만원
교육원 앞 주차장	36억원
구 제일암	2억 7천만원
충무원 국장 숙소	2억 4천만원
성종사 건물	27억원
생원비닐실천회 건물	18억5천만원
유공지 불하	7억원
산동중심 건물 낙할 보증금	1억2천만원
수용비닐(계약금, 중도금)	4억원
방앗간 기건물 및 관음회 등 사무실 토지	4억원
총 계	1백61억3천만원

2. 현대건설에서 받은 보상금 41억원은 한점의 거짓도 없이 투명하게 사용되었음을 밝혀드립니다.

저들은 정말 터무니 없게도 조계사 사부대중이 은 몸을 던져 싸운 끝에 조계사 대응전을 지키고, 현대건설 측으로부터 받은 41억원의 보상금을 전액 횡령했다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고령의 노보살들이 실신을 해가면서까지 싸워서 받아낸 보상금을 횡령할 수 있을 것이며, 조계사 사부대중이 그토록 피나게 투쟁하고 있을 때 충무원에서는 그저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아무런 대응도 준 적이 없었습니다. 현대의 보상금은 4회에 분담해 입금되었고, 현금이 아닌 1개월 약정의 어음으로 지급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자가 발생될 수 없고, 입금되는 즉시 교육원 및 주자장부 매입비 36억원과 교육원 건물 계약금 등으로 전액 지급되었습니다.

3. 농협 대출금 50억원은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한 부득이한 차용이었으며, 전액 투명하게 사용되었습니다.

98년 10월 농협 종로지점에서 대출받은 50억원은 IMF사태로 인해 은행과 사채 이자가 급등함에 따라 날로 높아가는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습니다. 당시 하나은행 대출금 10억원의 이자는 무려 183%에 달했으며, 그나마 은행권에서의 신규대출도 불가능해 할 수 없이 토지매입을 위해 고금리의 각종 사채를 이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조계사에서는 하나은행 대출금 및 사채 상환 목적으로 충무원의 기채승인을 받아 145%의 농협 대출을 받았던 것입니다.

덧붙여 이전의 사채들도 모두 충무원의 기채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정체부명의 사채’ 운운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50억원의 대출금은 일단 하나은행 대출금 상환 10억원과 사채 상환 24억원 등 34억원이 사용되었으며, 나머지 16억원은 상용중심 매입대금 10억원과 수송비닐 전금 6억 5천만원을 지급하기 위해 조계사 신협에 정기예금으로 예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중반 사채로 정화계획회의의 요구에 따라 분담금으로 8억여원이 지급되었고, 나머지 8억원은 현재 조계사를 강점한 자들이 가져간 바 있습니다. 이로써 현재 조계사의 순채는 50억원의 대출금 중 34억원과 전세보증금 8억여원 뿐임을 알려드립니다.

4. 사중운영과 각종 불사는 모두 충무원과 중회의 승인과 감독을 받아 왔으며, 한 점 의혹의 여지도 없음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현재 조계사를 강점하고 있는 세력들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불전과 기도비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백80%가 증가했다고 주장해, 마치 이전에는 불전과 기도비 운영에 비리가 있는 것처럼 매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는 IMF사태로 인해 불전과 기도비 등 사중수입이 급감한 시기였음을 강조하고자 하며, 백번 양보해 그들의 주장을 믿고자 해도 오히려 부처

님 오신 날 수입은 지난해 12억원에서 올해 7억원으로 줄었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만 말입니다. 우리는 지난 11년간 사중운영을 함에 있어서 직역사찰법 및 직역사찰운영 관리규정에 의하여 매월말 충무원에 결산보고를 하였으며, 또한 등방에 의하여 충무원의 관리감독을 받아왔을 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중회의와 충무원의 감사료 받아 왔습니다. 또한 각종 토지매입 불사에서는 사전에 가결결정부터 계약까지 반드시 충무원 담당 직원의 입회하에 불사를 진행해 왔고, 은행대출과 사채 차용시에도 반드시 충무원의 입회하에 불사를 진행해 왔고, 은행대출과 사채 차용시에도 반드시 충무원의 기채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오히려 의혹을 제기하고 있음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5. 만불전 불사는 신도 여러분의 염원에 따라 착실히 진행돼 왔고, 불사 보시금은 모두 목적용도에 사용됐거나, 잉여자금은 토지매입불사에 사용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저들은 지난 92년부터 벌여온 만불전 불사 보시금이 마치 유용된 것인양 매도하고 있지만, 그것은 정말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만불전의 부처님은 민선식사에 의해 이미 1만5천6백개가 조성돼 있으며, 건축에 필요한 목재도 모두 구입해 놓은 상태입니다. 본래는 정화회관을 철거한 자리에 바로 작공할 예정이었으나, 충무원 청사 건립등 조계사 종합 성역화 계획에 따라 입지선정을 위해 작공을 미루고 있었던 뿐 공사에 필요한 만불의 준비를 갖추어 온 바 있습니다. 더불어 남아있던 불사금은 전액 토지매입불사에 사용됐음도 알려드립니다. 사실 일일이 변명할 필요도 없고, 대응을 하지않고 끝이 없었지만 우리는 인내를 갖고 찾아 왔습니다. 하지만 조계사를 중흥시키기 위해 그토록 노력해 왔던 사부대중을 한낱 과녁처럼 매도하는 지경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앉아서 당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어떠한 조사에도 응할 것입니다. 또한 검찰의 수사 보다는 양측이 공동으로 공인회계사와 변호사 등 전문가를 참여시킨 가운데 진상조사를 할 것을 제의합니다. 실제로 저들은 지난 3월 말인 중회발언을 통해 “2천만원 줄고 공인회계사를 통해 2달간 장부를 면밀히 검토했지만 뚜렷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과연 누가 옳고 누가 잘못된 것인가는 조사를 하면 당연히 밝혀질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지난 4년간 충무원장을 맡으며 갖은 비리를 저지른 월주스님이 아직도 당당히 ‘상항’을 자처하며, 중단을 주무르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조계사 사부대중과 이찬 불자 여러분!

지난 11년간 한국불교의 상징인 조계사를 성역화 하고자 그 누구도 업두대지 못했던 대작불사를 일으키기 위해 노심조사했던 날들을 생각할 때, 그러한 노력들을 이렇게 간악하게 매도한다면 도대체 어느 누가 불사의 원력을 내고, 어떤 신도가 보시를 할 것인지 심각하게 반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들의 간교한 중상모략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정법을 구하기 위해 용맹정진할 것을 굳게 약속드리며, 여러분의 지혜로운 판단과 성원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불기 2543년 7월 28일

조계사 前소임자 일동